

휴대전화 보급과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플랫폼 등장 가능성*

— ‘전화돈’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

정은이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 실장)

- I. 서론
- II. 공식·비공식 통신금융 시장의 맹아
- III. ‘전화돈’의 확산과 북한판 모바일 금융 플랫폼의 태동
- IV. 신행 사금융의 등장과 제도화 가능성
- V. 결론: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플랫폼 등장 가능성

〈요약〉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률에 착안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이 북한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중에서도 ‘전화돈’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 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휴대전화의 보급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측면에서 재발견되었다. 첫째, 휴대전화 사업이 공식 영역이면서도 암시장에서도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둘째,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전화돈’이라 불리는 통화시간이 모바일머니와 같이 화폐로 환산되어 소액거래에 활용되었다. 전화돈을 작게 나누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가입자 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이 부각

* 본 연구는 정은이, 2019, “소액금융의 시각에서 본 북한 손전화 ‘전화돈’의 재발견,” 『통일문제 연구』, 제34권 1호에 게재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전화돈은 이월되며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면 저축의 효과를 가져와 이것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송금 또는 소액대출에 활용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전화돈은 기존 사금융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사금융이 대도시 중심의 외화 기반의 장사나 무역 부문에 활용되었다면, 전화돈은 소액에 한정된 거래에 활용되는 만큼 금융소외계층에 효율적이며 절실한 금융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화돈은 국가통제 대상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전화돈은 외화로 충전되므로 국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 물론 전화돈은 국가가 시중의 외화를 거둬들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내화 방출 효과를 가져와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로 통제가능하다. 당국은 오히려 금융부문에서 전화돈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공적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당국은 2015년 내화 기반의 전성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신과 금융부문을 접목 시킬 방안을 국가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전화돈 또한 이에 맞추어 선불전화 카드 이외에도 전자카드를 통해 원하는 만큼 충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을 새롭게 내왔다. 다만, 국가를 얼마나 주민들이 신뢰하여 상업이나 무역 등에 종사하는 대규모 돈주의 자본이 스스로 공공성을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향후 당국이 전자화폐의 관리 및 통제의 편익에 의해 휴대전화에 모바일결제 앱을 만들어 전성 카드와 접목시킬 경우 전화돈의 기능은 공적 금융으로 흡수될 수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북한판 모바일 금융 서비스플랫폼’ 등장 가능성이다.

1. 서론

본 연구는 북한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률에 착안하여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융 부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중에서도 ‘전화돈’의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등장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보화시대와 맞물려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률은 금융 부문에 혁신을 불러왔다. 특히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급증하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송금 및 결제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가속화 되는 추세이다.¹⁾ 이는 문자전송 기능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스마트폰이 아닌 사양 휴대전화에서도 가능하다.²⁾ 대표적으로 케냐의 M-PESA이다. M-PESA는 Mobile의 ‘M’과 스와힐리어의 ‘돈’을 뜻하는 ‘PESA’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기반의 송금 및 소액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이다.³⁾ 이를 통해 사람들은 번거롭게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송금액과 수령자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수령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드를 받고 그 코드로 전 지역에 분포된 대리점을 찾아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⁴⁾ 일종의 무점포 금융플랫폼 서비스이다. 바꿔 말하면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가장 큰 공헌은 ‘금융소외’⁵⁾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⁶⁾ 모바일 금융서비스플랫폼은

-
- 1) “낮은 인프라 수준과 기술적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M-Pesa와 같은 모바일 금융결제시스템은 개도국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저소득층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원과 가격으로 이들 생활수준에 기여했다.” 김명숙(2018).
 - 2) “고객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평균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기존 은행에 계좌가 없다. 그러나 휴대전화 보급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는 스마트폰이 아닌 이전 사양 휴대전화에서도 텍스트 형태로도 이용가능하다. 비용도 저렴하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새로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 은행이 없는 시골 가임자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https://justgrowing.tistory.com/4>(검색일: 2022. 4. 15.).
 - 3) 강신원. 2015. “모바일 금융의 국내외 동향: 케냐의 M-PESA를 중심으로.” 『TTA』 Vol. 161, p.74.
 - 4) 엠페사는 곳곳에 있는 각종 구멍가게를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엠페사 계좌에 입금된 돈이나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현금화하고 싶다면 거리나 상점마다 있는 엠페사 에이전트에 방문하기만 해도 된다. <https://news.v.daum.net/v/20180503003928398> (검색일: 2022. 4. 15.)
 - 5) ‘금융소외’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권 금융기관 서비스 및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황규득 외(2015). p.16. 참조.
 - 6) 이에 관해서는 장종문·박현주(2015).

간단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대도시 중심의 ATM 분포와 높은 신용 등급 및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은행에 대한 접근장벽이 높은 취약계층에게 장소와 시간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저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⁷⁾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휴대전화 보급과 더불어 이른바 ‘전화돈’이라 불리는 통화 시간이 화폐로 환산되어 소액결제 및 송금, 심지어 대출에도 활용되었다.⁸⁾ 이는 가입자 간 전화돈이 이월(移越)될 뿐만 아니라 작게 나누어 이체 가능하다는 기술적 측면이 주목되면서 비롯되었다. 이른바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 플랫폼 맹아의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휴대전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휴대전화의 정보 유통 및 통제 여부나 기술적 차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⁹⁾ 설령 금융 부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도 이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7) “1실링짜리 소액 고객, 모바일 계좌 사용자들은 대개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간과된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여성이나 가난한 사람, 전통적인 은행지점을 여는 것이 의미가 없는 시골 사람들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취약한 국가에서 모바일 거래 네트워크는 비공식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 ... 멀리 떨어진 친구나 친척들에게 쉽고 빠르게 돈을 모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관리하여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 ... 휴대전화 개발은 금융서비스 접근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모바일 통신 가능 구역 확장은 페루 농촌의 소비증가 및 빈곤 감소와 연관된다.” Leora Klapper/김채령 번역 “경제개발의 주요 수단이 된 휴대폰: 여성들도 사용할까요?,” <http://brook.gs/2D6YhU4>.

8) 케냐에서는 통화 시간 쿠폰을 구입해 먼 곳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내주면, 그쪽에서는 그것을 가게에 팔아 돈을 손에 넣는다. 은행이 없는 곳에서 통화시간 쿠폰이 현찰기능을 하는 것이다. 김찬호(2008), pp.66-67.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5250/1> (검색일: 2022.4.15).

9) 휴대전화 사용 실태에 관해서는 김연호, 2013,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 서울: KDI 북한 경제리뷰, 3월호; 북한개혁연구원 편, 2013, “북한 휴대전화 사용 실태 및 대북 진출 방안,” <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korea/namsungwook/6.pdf> (검색일: 2022.4.15.) 참조. 한편, 정보화에 초점을 맞추어 휴대전화라는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 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는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서울: 늘품플러스, 2011);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행위자-연결망이론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등이다. 정보통제에 관해서는 Martyn Williams and Niklaus Schiess, “Project Reveal : New research in to North Korea’s digital control system,” <https://www.lumen.global/reveal-report>; (검색일 2023.3.17.)

영향 중 일부로 다루어지며,¹⁰⁾ 금융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다.¹¹⁾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첫째, 휴대전화의 요금체제와 더불어 ‘전화돈’이 금융부문에서 활용·응용되는 역동적인 과정에 주목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전화돈’이 기존 사금융과 어떤 관계 속에서 확장·성장하는지를 고찰한다. 셋째,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금융 소외계층에게 공헌하는 측면도 함께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둘러싼 당국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향후 비공식 영역에서 성장한 전화돈이 공식 금융부문에 어느 수준까지 적용·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전망해 본다. 이른바 북한판 모바일금융서비스 플랫폼 등장 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제연구』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등 북한 공식 문헌 외에 다음과 같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는 이탈주민 21명을 대상으로 전화돈이 금융 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다. 조사내용은 <표 1>과 같이 휴대전화 최초 구입 시기, 전화돈 이용 여부, 휴대전화 구입 목적 등이다.

10) 객인옥은 주로 휴대전화가 통신산업 외에 서비스부문에 미친 영향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금융부문에 한해서는 휴대전화의 정보전달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휴대전화의 신속한 정보전달기능이 기존 사금융 거래를 촉진시켰다는 논리다. 객인옥(2017), pp.189-193.

11) 최선경은 휴대전화 사용이 민간 송금체계에 미친 영향도 주목은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시장화에 미친 포괄적 내용을 다루었다. 최선경.(2021), p.26.

〈표 1〉 북한 이탈주민 명단 및 휴대전화 사용 용도

명단	출신지역	나이	탈북연도	직업	최초 구입시기	전화돈 이용여부	구입 목적
A	평양	40대 초반	2017	식당	2010		장사
B	양강도	40대 후반	2019	돼지 및 밀주	2017		장사
C	평안남도	50대 중반	2017	장사	2010		장사
D	평안북도	30대 중반	2019	사업	2013		장사
E	평안북도	30대 초반	2019	사업	2013		장사
F	황해북도	40대 중반	2018	지배인	2010		장사
G	평안남도	40대 후반	2017	장사	2011		장사
H	평안북도	60대 중반	2018	무역	2010		장사
I	양강도	50대 중반	2019	장사	2016		장사
J	양강도	60대 초반	2019	돼지 및 밀주	2017		장사
K	남포특별시	50대 중반	2019	무역	2013		장사
L	남포특별시	40대 후반	2018	무역	2012		장사
M	평양	40대 후반	2019	무역	2012		장사
N	함경남도	50대 중반	2018	장사	2013		장사
O	강원도	50대 중반	2019	무직	2012		장사
P	삼지연	60대 중반	2019	돼지 및 밀주	2017		장사
Q	평안북도	40대 초반	2019	무역	2012		장사
R	함경북도	50대 중반	2019	장사	2011		장사
S	평안남도	50대 초반	2019	무역	2012		장사
T	자강도	20대 후반	2019	무역	2014		장사
U	강원도	20대 초반	2021	장사	2015		오락

II. 공식·비공식 통신금융 시장의 맹아

1. 이중 판매구조 속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북한 휴대폰 산업은 국가 독점의 공식 영역에 속한다.¹²⁾ 그러나 필자의 조사 결과, 다음 E씨의 증언과 같이 암시장이 동반 성장하였다.

“장마당에서 휴대폰 판매상은 대체로 여성이 압도적이다. 종류만 해도 막대기폰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30~40종이 넘는다. 따라서 휴대전화 도매상은 다양한 물량확보를 위해 1만~5만 불 정도 씌드머니가 필요하다. 그다음 기기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가 공식 판매처에서 새로운 폰을 대량으로 시가(암시장)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다. 주로 공식 루트를 통해 휴대전화를 빼돌릴 수 있는 고위 간부로부터 전화기 1대당 10~20달러 저렴하게 사들인다. 또 하나는 휴대전화 장사를 오래하다 보면 중고폰을 팔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때 기기 상태 확인과 수리 등을 위해 기술자도 고용한다. 이와 함께 유심도 판매한다. 초기에는 유심 1개당 200불에도 거래되었으나 지금은 경쟁이 심해 110불 선으로 하락했다. 또한 중간에 거래를 성사 시켜주는 ‘바퀴’라 불리는 중개인이 있다. 이들은 1건당 판매자로부터 중국 돈 약 10위안을 받는다. 바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폰 시장의 경쟁이 심하다는 말이다. 그 외 전화기 관련 케이스 등 각종 악세서리도 판다. 따라서 휴대폰 관련 시장이 이제는 큰 부문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암시장이 성장한 결정적 이유는 수요를 충족

12) 곽인옥(2017), pp.160-162.

시킬 만큼 충분한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¹³⁾ 물론 공식 루트를 통해 휴대전화의 구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¹⁴⁾ 다만 긴 줄을 서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¹⁵⁾ 설령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청에 성공했다고 해도 입수에 이르기까지 긴 대기 시간과 더불어 언제 입수 가능한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소요되어도 하루빨리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일 것이다.

이는 공식과 암시장 간 가격 차이를 발생시켜 암시장으로 더 많은 기기를 유출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주목할 점은 휴대전화보급률이 이미 1인당 소득 대비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21년 7월 SDGs 이행을 위해 북한이 UN에 제출한 ‘VNR’에 의하면, 휴대전화 보급률은 2017년 현재 15세에서 49세 사이 남성이 55.7%, 여성이 47.9%였다.¹⁶⁾ 이는 인구 4명당 1명의 보유율로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대부분 소지하고 있다고 간주할만한 의미있는 수치이다.¹⁷⁾ 북한의 대중

13) “휴대전화는 각 지역 소재지에 있는 체신소에서 판매하는데 이곳 또한 평양에서 지역별로 할당받은 만큼만 판매가 이루어져 늘 공급이 딸린다. 나도 장마당에서 휴대전화를 판다는 것만 알았지 국가 공식 기관에서 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어느 날 체신소 앞에 사람들 줄이 많아 물어보니 다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선 줄이라고 알려주었다. 이들도 앞줄만 순서가 돌아온다. 그래도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줄을 선다(이탈주민 J).”

14) 인터뷰 조사 대상자 21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암시장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1명은 암시장에서의 휴대전화 판매상이다. 즉, 휴대전화 판매를 목적으로 체신국 관료들과 인맥을 가지고 뇌물을 주고 최신 휴대전화 기기를 확보하였다.

15) “북한은 휴대전화 분실 사고가 많은데 본인 명의로 하면 분실했을 때 차단하고 다시 그 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다.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암시장보다 50불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식 루트를 통해 구입할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많이 기다려야 한다. 체신소와 연결이 있는 특권계층에 한해 가능하다.”(이탈주민 D씨).

16) The Government of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VNR_Report_DPRK.pdf>(Accessed July 10, 2021), p.24.

17) 물론 다양한 요인에 의해 1인당 2대 이상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수입품목 중 휴대전화가 2010년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으며 2018년 제재 강화 직전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표2〉 참조).

〈표 2〉 북한 대중 10대 수입품목과 휴대전화(2001~2020, HS code 4)

순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2																				
3														전화기			전화기			
4																				
5															전화기					
6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7												전화기								
8													전화기							
9																				
10																				

자료: KITA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럼에도 공식 가격보다 기꺼이 약 50달러라는 비용을 더 지불하고도 구입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초과 수요가 존재함을 뒷받침한다. 이는 무엇보다 휴대전화의 사용 가치가 너무 높아 효용이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휴대전화는 북한에서 사치품에 속할 정도로 고가이다. 공식 임금이 2,500원임을 감안하면 1대에 미화 150달러에서 최대 700달러에 이르는 휴대전화는 최소 40년 이상 일해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다.¹⁸⁾

그러나 휴대전화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구매 또는 판매해야만 이윤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주요한 정보

18) 1달러에 시장환율 8,300원을 적용한 경우임.

매개체라면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필수품이 된다.¹⁹⁾ 특히 휴대전화를 통한 실시간 환율 및 가격정보의 공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시장을 특정 계층만 폭리를 취하는 독점구조에서 경쟁구조로 바꾸어 일반인도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²⁰⁾ 이로 인해 휴대전화는 고가의 상품으로써 희소성이 높지만 동시에 사용 가치가 높아 구매 후에도 좀처럼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일종의 유동성(liquidity)이 높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등장한다. 때로는 빚 담보가 되어 급전을 융통하거나 장사 밀전이 없을 때 즉시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것이다.²¹⁾

2. 이중 요금체계와 ‘전화돈’의 거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²²⁾ 휴대전화요금은 1분기당 내화 약 2,800원이다. 이는 월에 1천 원꼴로 쌀로 환산하면 약 0.2kg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본요금에는 1달에 200분의 무료통화와 문자 20통 외에도 전화돈 약 150원이 서비스로 지급되어 효용이 크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화돈’은 무료통화를 다 소진한 후 공제되는데, 일반적인 화폐 개념과 다르다. 명칭만 ‘돈’이지 통화한 만큼 시간으로 환산되어 차감되는 일종의 통화

19) 이에 관해서는 정은미 외(2021), pp.154~159 참조. 필자의 조사에서도 대부분 휴대전화의 구입 목적은 장사에 있었다. 다만, 연령 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젊은 층의 경우 게임 등 여가를 위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경향이 강했다(〈표1 참조〉).

20) “현재는 북한에서 상품 가격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휴대전화 보급으로 지역 간 장거리 집을 날라 주는 물류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들이 물류 이동을 빨리하면서 지역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하였다. 그만큼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경쟁이 심해져 장사하기 힘들어졌다(이탈주민 F씨).

21) (이탈주민 O씨)

22) 〈표1〉 이탈주민 면담 명부 참조

시간이다. 예를 들어, 통화 1분당 전화돈 약 4원 20전이 차감되며 100분 통화를 하면 분기당 한차례 지급되는 전화돈 450원은 전부 소진된다. 결국 휴대전화 1달 기본요금에는 무료통화 200분에 문자 20개 외에도 더 35분의 통화를 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 이탈주민 G씨 증언과 같이 전화돈이 하나의 현금과 같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원래 정부는 전화돈을 예비 통화로 쓰라고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전화와 전화가 연결되고 이동할 수 있게 되자 지불수단이 되었다. 전화돈 450원의 실질 가치가 북한돈 100배로 거래된다. 국가는 추가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데, 이것이 돈으로써 유통이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전화돈의 희소성(稀少性)에 있다. 즉, 기간 내 주어진 전화돈을 다 소진하고 추가로 충전할 경우 외화로 된 전화카드를 구입해야 하는데 고가이다. 예를 들어, 10달러짜리 전화카드 1장을 구입하면 전화돈 850원이 충전되는데 이는 약 200분의 통화가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1분당 기본요금 체계에서의 통화료는 내화 약 4.3원이지만 추가 통화료는 415원으로 기본요금의 약 100배 비싸다.²³⁾ 기본 요금은 내화에 바탕을 둔 국정가격체계가 적용되지만 기본 통화를 다 소진한 후 추가로 전화돈을 충전하는 경우, 비싼 시장가격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화돈만큼은 이월이 가능하여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면 저축의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이중가격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추가로 전화돈을 구입해야하는 가입자가 생겨나는가 하면, 한편

23) 이탈주민 면담에 의해 필자 작성. <표1> 이탈주민 면담 명부 참조.

으로는 전화돈은 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아껴서 모아두는 가입자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중가격제가 존재하는 한 기본요금만 내면 분기당 서비스로 지급되는 전화돈 450원이 실제로는 미화 4.5달러, 내화로는 4만 오천원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가격체제로 인해 휴대전화를 2대 이상 보유하는 가입자도 있다.²⁴⁾

문제는 저금한 전화돈의 가치가 실현되려면 전화돈이 부족한 가입자와 잉여가 발생한 가입자 간 전화돈을 교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화돈은 이탈주민 G씨의 증언과 같이 휴대전화만 보유하면 시공간의 제약없이 문자서비스만으로도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화하다가도 전화돈을 소진하여 추가로 10분 더 통화를 원하면 지인에게 전화돈 40원을 문자를 주고 받는 식으로 받고 나중에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거나 내화 4천원을 주면 거래는 끝난다. 다만, 1건당 최대 보낼 수 있는 전화돈의 한도는 150원이며 1차례당 거래 수수료로 전화돈 4원이 차감된다.

이와 같이 전화돈이라는 통화시간은 희소성과 더불어 가입자 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월된다는 기술적 측면이 주목되면서 화폐와 같이 가치가 매겨져 저축 및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3. 전화돈의 암시장 생성과 역동성

전화돈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아예 선불전화카드의 구입 또는

24) 휴대전화요금의 이중 가격체계에 의해 1인당 휴대전화 보유율이 높은 이유에 관해서는 정은미 외(2021), p.148 참조.

전자결제 카드로 전화돈을 대량으로 충전해 놓고 이를 다시 소분(小分)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전문 전화돈 중개인이 생겨났다.²⁵⁾ 이른바 도매로 싸게 사서 소매로 비싸게 파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10달러짜리 선불 전화카드는 전화돈 850원을 충전할 수 있다. 이는 1달러에 전화돈 약 100원과 같다. 그런데 전화돈 장사는 전화돈 100원당 내화 약 7,500원에 싸게 사들이고 되팔 때는 1만 원에 넘긴다. 결국 전화카드 1장당 총 2만 5원의 차액을 남길 수 있다.

이같이 전화돈 중개인이 생겨난 배경에는 돈만 있으면 전화카드를 얼마든지 구입하여 휴대전화에 충전해 놓을 수 있고 작게 쪼개어 상호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탈주민 D씨의 증언과 같이 전화돈에 대한 많은 잠재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인당 GDP가 최빈국 수준임을 감안하면 통신요금으로 한꺼번에 최소 10달러 이상 소비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돈 충전은 원래 체신소에 가서 충전해야 한다. 체신소는 공적인 전화카드 판매매대이다. 돈을 낸 만큼 내 번호에 시간(전화돈)을 넣어 준다. 장마당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거래내역을 등록해야 하는 등 시끄러워 번거롭다. 선불전화카드 또한 장사꾼들이 다 사가서 일반 사람들은 사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소액은 살 수 없다. 카드 1개당 최소 10달러면 내화로 8~9만 원이다. 돈 많은 사람이나 몇 개씩 살 수 있지 서민은 어렵다. 그래서 전화돈을 대량 사서 소분해서 파는 전문 브로커가 생겨났다. 내화로 천 원어치만 달라고 하면 계산해서

25) 예를 들어 나래 카드에 미화 100달러를 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화돈이 충전이 된다. 이는 선불 전화카드에 비해 대량의 전화돈을 한꺼번에 원하는 만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이탈주민 S씨)

전화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상대 번호로 넘긴다. 소액을 사니 비싸다. 그러나 당장 통화가 급하니 어쩔 수 없다.”

주목할 점은 ‘전화돈’ 거래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평양은 역내에서 조차 중심부와 외곽지역 사이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시내가 내화 1,000원~1,500원가량 더 싸게 거래된다.²⁶⁾ 거래가 많은 지역일수록 전화돈 공급이 원활하여 가격이 저렴하며 판매가와 구매가 간 가격 차이도 적다. 반면에 다음 이탈주민 O씨의 증언과 같이 시내에서 벗어날수록 가격 차이도 크며 비싸게 거래된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많은 지역은 비싸게 거래된다. 예를 들어, 단천시에서는 전화돈 100원당 도매상에 내화 8,000원 전후로 살 수 있지만 룡천은 12,000원에 사야 한다. 룡천은 단천시보다 180km 떨어진 금광촌이라 유선전화가 드물고 외지에서金を 캐고 있어 휴대전화만을 통해 통화가 가능하다. 즉, 룡천은 외진 지역이어서 전화돈 공급이 적은 반면 수요자가 많아 전화돈이 비싸다. 그래서 룡천에 사는 내 조카는 단천시에 오면 전화돈을 대량 구입해 간다. 1달에 전화돈 300원 정도는 구입한다.”

다만, 혜산과 같이 방해전파로 인해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국경연선은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낮아 오히려 전화돈은 싸게 거래되거나 매매조차 어렵다.²⁷⁾

26) 팔 때와 살 때 가격 차이는 1,000원~1500원 정도이다. 전화돈을 도매집에 팔겠다는 사람에게서는 전화돈 100원 당 내화 7,500원을 받고 사겠다는 사람에게서는 8천 오백원 내지 9천오백원에 판매했다. 그런데 이것도 평양 외곽에 가면 가격이 1,000원 정도 더 비쌌다. 즉, 팔 때는 7,500원이었고, 살 때는 9,500~10,000원에 샀다(이탈주민 A씨).

27) 이탈주민 B씨, J, K, O씨의 증언

이같이 전화돈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요동친다는 사실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만큼 전화돈 시장이 수적으로 많아졌으며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화돈 850원을 충전할 수 있는 전화카드 1장 가격이 초창기에는 현재 보다 2~3달러 더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전화돈 중개인은 특별한 공간이 필요 없고 초기 자본도 크게 필요 없다. 따라서 전화돈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장마당, 매대집, 개인 약국, 상점 등 길거리 곳곳에서 전화돈을 취급하였다.

Ⅲ. ‘전화돈’의 확산과 북한판 모바일 금융 플랫폼의 태동

1. 전화돈과 ‘모바일 머니’

분기별 서비스로 들어오는 전화돈 450원을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면 미화 18달러, 내화로는 149,400원의 목돈이 생긴다. 이는 휴대전화를 보유하면 1년에 쌀 33kg, 옥수수는 66kg 더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 향상을 뒷받침한다.²⁸⁾

이는 전화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면 장마당 등 소액 상품 구매에도 전화돈이 응용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장마당에서는 옷이나

28) 사람들은 이것을 아껴서 팔아먹는데,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부인도 전화돈이 들어 오면 절대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팔아서 쌀을 샀다(이탈주민 L씨).

전기가전제품 등 주요 공산품을 제외하면 곡물을 비롯하여 채소, 육류, 수산물 등 매일 주민이 소비해야 하는 국내산 먹거리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는 곧 장마당이 내화 기반의 소액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실제로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 이탈주민 D씨의 증언과 같이 전화돈은 식당이나 장마당 등 소액거래의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잔돈 결제에도 활용되었다.²⁹⁾ 현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액수만큼 전화돈으로 넘겨주면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화돈이 일종의 돈이 되어서 어디 가든 쓸 수 있다. 식당에 가서 ‘이송’할게요 한다. 시장에서도 상품을 살 때 돈이 없다면 ‘핸드폰으로 이체할게요.’ 하고 그에 해당하는 가격만큼 전화돈을 이체한다. 예를 들어 사과 1kg에 7천원이라면 전화돈 70원을 이체한다. 그러면 7천원인 것이다. 이때 전화돈은 돈으로 환전할 때를 생각해 시세보다 좀 비싸게 받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전화돈을 화폐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받는 사람은 향후 현금으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 거래비용의 발생으로 거래를 꺼릴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일단 현금 대신 전화돈을 받는 상인입장에서는 소비자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을 거래가 전화돈을 통해 성사된 측면이 있다. 또한 향후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대비해 전화돈을 시가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 예를 들어, 사과 1킬로당 내화 7천 500원이라면 전화돈 75원을 받아야 공평하지만,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대비해 전화돈 5원을 더 받는다. 구매자 또한 기꺼이 이를 수용한다. 그 이유는 편리성 때문이다. 전화돈 5원의 추가

29) 전화돈이 상품 매매를 위해 활용되는 경우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의주, 순천, 평성, 남포 등 대도시 중심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비용은 사용상 편익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소액거래에서 전화돈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동인이 되어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전화돈의 유동성은 활용범위를 넓혀 기프트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즉시 이체 및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강화되면서 생일 등에 현물 대신 전화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며 젊은 세대 간에는 일종의 과시용으로 후배들에게 선물로 보내기도 한다.³⁰⁾ 선불전화카드는 상급자에게 뇌물로 주기도 유용하다.³¹⁾

2. 전화돈과 모바일 소액대출

전화돈이 주민 사이에서 가치가 매겨져 화폐와 같이 통용됨에 따라 점차 ‘통신’에서 ‘금융’의 개념으로 확장·발전하였다. 즉, 전화돈의 용도가 많아지면서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를 대비해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거나 전자결제카드를 통해 대량으로 전화돈을 충전해 놓기 시작했다. 전화카드는 어디서든 구입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전화돈은 이월 또는 소멸되지 않고 유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급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 돈으로 교환 가능한 유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유심이 일종의 은행계좌와 같은 역할을 하며 유심에 전화돈을 충전해 놓으면 일종의 저금한 것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이로 인해 주어진 전화돈을 다 소진한 후에도 선불전화카드를

30) 이탈주민 E씨 증언.

31) 이탈주민 R, S 증언 등 다수.

구입해 전화돈을 충전해 놓으면 여유가 생겨 누군가 급전이 필요할 때 즉시 보낼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본인 휴대전화에 저축한 전화돈을 상대방에 전달할 때는 한 차례당 150원이라는 한도액과 4원의 수수료가 발행한다. 예를 들어 내화 4만 5천원에 해당하는 전화돈 450원을 보내려면, 전화돈 150원씩 3차례로 나누어 보내야 하며 수수료로도 전환돈 총 12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액 급전이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당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전달하면 전화카드 1개당 내화 8만 5천원에 해당하는 전화돈 850원이 즉시 충전되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소액일지라도 대가로 일정 이자를 지불한다. 또한 받은 즉시 수취인은 전화돈을 취급하는 주변 장마당이나 가게에 가서 현금화도 가능하다. 물론 이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급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IV. 신형 사금융의 등장과 제도화 가능성

1. 기존 사금융과 전화돈의 상호 보완관계

북한은 전국망을 가지고 환전과 더불어 이체 및 대출 기능을 수반하는 사금융시장이 이미 존재한다.³²⁾ 그러나 전화돈은 기존 사금융이 가지지 못한 우위에 의해 또 다른 사금융시장을 탄생시켰다. 필자의 조사 결과

32) 이에 관해서는 정은이(2017) 참조.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종합·정리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³³⁾

첫째, 휴대전화의 높은 보급률이다. 즉 기존 이관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미 전국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전국 어디든 송금 가능한 비공식 금융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고는 하지만 700만 대라는 휴대전화의 보급률만큼 전국을 커버할 수는 없었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리’ 단위의 농촌이나 탄광·광산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기동성이다. 이관집은 직접 발로 찾아가야 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화돈은 텍스트와 같은 기능만 보유한 휴대전화의 소지자라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주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전화돈은 재빠르게 대처가능하다. 모바일 금융이 상용화되지 않는 사회에서 전화돈은 그나마 돈과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모바일 수단인 것이다. 셋째, 유동성이다. 전화돈을 받으면 장마당을 비롯해 곳곳에 분포된 매점이나 상점 등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넷째, 가시성이다. 기존 사금융은 비공식 영역이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휴대전화 자체는 공식 영역이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소액거래이다. 기존 사금융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은 취급하지 않는다.³⁴⁾ 이는 이관집이 주로 외화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반면에 전화돈은 내화 100원도 쪼개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여섯째, 전화돈은 없어지는 자산이 아니다. 유심 기록이 남아 있어 유심이 일종의 통장 기능을 하며 따라서

33) 이탈주민 명단 <표1> 참조.

34) “개인 이관집은 100달러 이상 되어야 보낼 수 있다. 작은돈 10만원(북한돈)은 안 해주려고 한다. 달러나 비로 1장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에게는 만원도 크다. 장사돈은 크게 보내지만 작게 달마다 군대 아들에게 보내는 돈은 전화돈을 조금씩 모아 보낸다.” (이탈주민 P씨 증언).

전화돈을 쌓아두면 저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물론 전화돈이 확산되기에는 한계도 있다. 즉, 무엇보다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아닌 통화시간이 화폐로 환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환 비율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거래 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또는 이익을 보는지가 모호하여 이는 전화돈 거래를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화돈을 받으면 이를 다시 현금화해야 하므로 별도의 장소를 찾아가야 하며 수수료도 발생하는 등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한 송금액 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전화돈은 1차례당 150원 이하만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수수료로 매번 전화돈 4원이 차감된다. 물론 카드를 구입하여 번호를 전송하면 한도 액도 없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시중에 판매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어디까지나 통신용으로 판매되고 있어 거래 규모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즉, 많은 돈을 한꺼번에 송금 및 대출하는 데는 시스템상 제약이 뒤따른다.³⁵⁾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야 말로 전화돈이 기존 사금융과는 경쟁 관계가 아닌 부족 부문을 메꿔 주는 상호보완 관계에서 새롭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액 중심의 결제 및 송금, 대출, 특히 급전에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35)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돈으로 북한돈 10만원을 보내려면 전화돈 총 850원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1차례 당 전화돈 이체 한도가 150원이어서 6~7번은 보내야 한다. 그래서 아예 상대방에게 전화돈 카드 10달러짜리를 구입하여 카드번호를 불러준다. 문제는 이조차도 최대 10달러여서 100달러를 보내겠다는 이 과정을 10번은 해야 한다. 상대방도 8개짜리 번호를 10번 입력해야 한다. 귀찮다.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많은 돈을 이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탈 주민 M씨 증언)

2. 전화돈의 긴급재난구호 및 주민 복지향상 기능

전화돈이 금융부문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된 이유는 주로 급전이 필요하여 융통해주는 용도에 있었다. 특히 군대나 돌격대에 멀리 나간 자식에게 용돈 보내는 용도로 활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군대나 돌격대가 도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입지해 있어 기존 이관집을 통한 송금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틈새를 비집고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화돈을 자칫 과소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군대는 100만 전후로 규모가 적지 않다. 더욱이 여기서 말하는 ‘용돈’의 개념이 다르다. 용돈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자질구레하게 쓰는 돈 또는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³⁶⁾ 그러나 북한 군대에서 부모가 보내는 용돈은 다음 탈북자 Q씨의 증언과 같이 생명선과 같을 정도로 매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급전’에 가깝다.

“군대에 나가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생활이 진짜 어렵다. 옥수수도 변질되어 탈 나기 일쑤이다. 신병 훈련 때부터 영양실조가 온다. 그래서 자식 군 보내는 엄마들은 늘 가슴 아파한다. 힘 있는 간부 자식들은 돈을 써서 형편이 좋은 곳에 보내지만 힘없는 집안 자제들은 국가에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 허약에 걸리지 말고 굶어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는 군대에 용돈 보내는 문화가 생긴 시점이 경제난에 직면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을 통해서도 뒷받침 된다.

36)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dfdec1d74734ced8af3004ae065596a> (검색일: 2022년 4월 15일).

이 경우 전화돈은 소액도 즉시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긴급 구호 수단이 된다. 물론 군대에서 일반 병사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관계로 군 상급자나 혹은 군대 주변 민가를 통해 전화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액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 외에 군대 간 자식에게 돈을 보낼 수단이 부재하다. 설령 전국망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송금 가능한 이관시스템이 존재해도 이는 도심에 국한되며 산골 외진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외진 곳은 휴대전화 보급률조차 낮다. 이러한 회소성으로 인해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에 거주하는 전화돈 중개인은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전화돈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 중개인 또한 큰돈을 버는 구조도 아니다.³⁷⁾ 문제는 이 소액에서 절반 이상 수수료를 차감하면 실제 전화돈 수취인이 받는 최종 수령액은 극소액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다음 P씨의 증언과 같이 전화돈은 직접 부모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신속하며 비용도 절약된다.

“예전에는 돈을 보내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간부 자식들은 좋은 곳에 군대를 보내도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강원도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 강원도에 군대를 보내는 법이 없다. 가능한 고향에서 먼 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거기 가는 친척한테 돈을 빌려 겨우 한두번 돈을 보낸다. 면회 기회도 적은데다 한번 가려면 일단 여행증을 내야 한다. 거기서도 돈이 나간다. 또 며칠씩 기차를 타야 한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 노정에서 먹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교통도 한심하고 모두 다 불편하다.

37) 기껏해야 평균 50달러 미만이다. Q씨, I씨 증언.

막상 가면 상관 것까지도 챙기고 나면 아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지금은 장사 체계가 잡히면서 돈 보내는 것도 틀이 잡혔다. 손전화기로 보내면 바로 받을 수 있다. 물론 한번 보내는 돈도 북한 돈 50만원 이하지만 너무 배가 고프면 엄청 도움된다. 지금은 또 어디든 돈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도록 상업망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즉, 전화돈은 군대까지 직접 면회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여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도 한다. 특히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취약계층도 일정 중개 수수료만 지불하면 전화돈을 취급하는 곳을 찾아가 언제든 전화돈을 보낼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전화돈이 금융소외계층에 매우 유용한 금융 수단이 된다는 근거가 된다.

한편, 기본요금에 서비스로 포함된 전화돈 450원을 쓰지 않고 모아 두면 일반 주민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된다. 분기당 전화요금 2,800원만 내면 전화돈 450원이 충전되며 이는 시중에 내화 약 45,000원과 교환할 수 있다. 따라서 주목할 점은 다음 K씨의 증언과 같이 추가로 책정된 전화돈 450원은 휴대전화 가입자라면 모두 국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분기당 45,000원을 무상으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하며 쌀로 환산하면 1년에 약 40kg을, 옥수수 80kg을 더 공급받는 것과 같다. 이는 농민들의 1년 분배량이 상당히 적을 경우, 맛먹는 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화돈 450원은 북한돈 4만 5천원에 거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러면 국가는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1년에 18만원을 더 주는 것과 같다. 반면에 내가 1년에 지불하는 휴대전화 기본요금은 1만 1,2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화돈이 단순히 통신과 금융의 관점을 넘어 국가재정 지출을

통한 주민 복지 확대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국가는 선불전화 카드 판매를 통해 시중의 외화를 흡수하는 동시에 대신 전화돈을 통해 보조금을 주고 이것이 시중에 소액거래에 활용되면 현금 유통을 활발하게 하여 통화정책의 효과와 더불어 주민 복지를 도모하는 이른바 재정정책의 확대 효과를 동시에 펼칠 수 있는 것이다.

3. 전화돈이 통화 및 재정정책에 미치는 효과

2012년 휴대전화의 보급 시기와 맞물려 거래되기 시작한 전화돈은 기존 사금융의 없는 기능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사금융의 영역을 파생시켰다. 이는 국가가 전화돈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일 수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통제 조치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8년 전후로 군대 간 자식에게 용돈 보내는 용도에 한해 통제를 시작하였으나 그 이유는 전화돈 남용에 대한 통제였다. 즉,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거나 군대 간 자식에게 용돈 보내는 용도로 사용될 때만금은 중개 수수료가 원금의 40~60%에 달할 정도로 중개인이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다.³⁸⁾ 바꿔 말하면 전화돈 전반에 대한 통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 전화돈의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외화로 된 전화카드가 많이 판매되어 이를 통해 국가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 의도외는 별개로 결과적으로는 전화돈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재정지출의 확대를 도모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38) “국가에서 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탈주민 I씨, J씨, Q씨 증언)

다시 말하면 국가는 전화돈을 통제할 이유가 크게 없다. 특히 향후 휴대전화의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국가가 더이상 전화기 판매를 통한 수익이 크게 기대되지 못할 때 전화카드의 판매는 국가 재정 수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이다. 통화(通話)만큼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휴대폰 독점 판매 사업이 전화돈 거래라는 비공식 금융 영역과 맞물려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전화돈이 시중 거래에 많이 활용된다는 사실은 국가가 그만큼 시중의 외화를 거둬들이는 만큼 내화를 방출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와 자칫하면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내화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화돈이라는 통화시간이 내화로 환산되어 실제 상거래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화카드는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로 통제 가능한 영역이다. 오히려 이러한 전제의 기능은 통화량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통화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

4. 공공용으로의 흡수 가능성

전화돈의 긍정적 기능과 효과를 고려하면, 북한 당국은 전화돈의 기능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금융정책에 적용 및 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2015년경 상업 은행법 개정과 함께 출시된 전성카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⁹⁾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전성 카드는 현재 송금의 기능이 부각되면서 주민간에 확산되었으며, 특히 군대

39) 2015년 7월 22일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에 따르면 12. '은행카드' 업무를 추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2016). p.444.

간 아들에게 용돈 보내는 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⁴⁰⁾ 그 이유는 은행의 낮은 송금 수수료에 기인했다.⁴¹⁾ 특히 전성 카드는 소액도 얼마든지 송금가능하다. 즉, 소액 송금에 대한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 당국은 낮은 수수료를 기존 사금융과 경쟁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다. 특히 다음 이탈주민 A씨의 증언과 같이 전성 카드는 향후 전자결제의 영역에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평양은 국영상점에 가면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내화사용이 가능한 상점, 광복백화점 등에 가면 쓸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은 아직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성카드로 상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지방에는 카드 결제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못 쓰는 것이지 결제시스템만 들어오면 사용 가능할 것이다. 국가가 전성카드를 처음 내놓았을 때도 향후 국영 상업망에서 사용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도 카드를 만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성카드는 전화돈의 송금 및 결제 기능을 공공금융영역으로 흡수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북한 당국이 다음과 같이 2021년 10월 2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로동신문』의 정기구독료가 전화돈으로 차감되고 있었다.⁴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결제법은 전자결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류통량을 늘리며 화폐류통을 원활히 하는데 이바지한다(1조)……전자결제수단에는

40) 정은이(2019) 참조.

41) 이체 수수료에 대해 이탈주민 G씨는 “새발의 피”라고 표현할 만큼 적은 금액이었다. 반면에 사금융의 송금 수수료는 1%~5% 전후였다.

42) 이탈주민 T씨 증언.

컴퓨터, 금융카드 및 카드결제기, 손전화기, 자동현금출납기 같은 것이 속한다(2조).”.

이는 북한이 향후 전자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전화돈의 기능을 휴대전화와 접목시킬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전성카드는 내화에 기반한 은행카드이므로 특정 계층이 아닌 대중적 보급을 목표로 출시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성카드가 통신의 기능과 접목된다면, 전화돈의 모바일 기능을 흡수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다음과 같이 휴대전화를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이라는 국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할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동통신망에 의한 주민금융봉사를……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감으로써 현금류통량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금융봉사의 현대화, 정보화 수준을 높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⁴³⁾

바꿔 말하면, 다음과 같이 당국이 모바일의 통신 기능을 다음과 같이 ‘재정금융부문’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음성호출이나 통보문봉사는 물론 자료 통신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손전화기가 사람들 속에 널리 리용되고 있는 현실은 재정금융부문에서도 이러한 기술 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⁴⁾

최종적으로 당국은 다음과 같이 휴대전화라는 통신매체를 금융 부문과 접목하여 모바일에 기반한 금융재정 시스템의 구축을 금융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 리유정(2018), p.43.

44) 겸철성(2020), pp.33~34.

“이동통신망에 의한 주민금융봉사를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손전화기로 주민들이 금융거래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손전화기로 주민들이 리용할 수 있는 금융 및 결제 봉사에는 손전화기 등 이동통신 기재를 리용하여 이루어지는 은행구좌정보조회, 현금 출금, 자금 환치와 같은 손전화금융봉사와 상점 및 봉사기들에서 상품 및 봉사 구입에 따른 대금지불 및 결제 봉사를 진행하는 손전화결제봉사 등이 포함된다.…… 이동통신기관, 금융기관, 상점 및 봉사기관들이 밀접히 연결되어 전화기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금융봉사하부구조와 이동통신기관의 이동통신봉사하부구조를 원만히 구축하고 이들 사이의 밀접한 사업상 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⁴⁵⁾

나아가 당국은 다음과 같이 전자상거래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금융과 통신의 결합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동통신사업을 통하여 요구되는 상품이나 통신사의 탐색 및 주문과 구입, 지불을 상점이나 백화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으며 자기의 상품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이동통신사업을 새 세대 전자상업이라고도 한다.……세계적으로……이동통신상업거래에 의한 상품판매액은 현재 전체 전자상업거래에 의한 판매액의 40%이며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것으로 보고 있다.”⁴⁶⁾

45) 리유정.(2018), p.42.

46) 현정훈.(2016), p.53.

이는 무엇보다 인민대중주의라는 인민생활향상 목표와 함께 금융재정의 주요 목적인 시중의 유휴화폐 흡수에 모바일이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당국이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데 모바일 화폐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당국은 휴대전화의 보급률이 매우 높고 이미 생활상 필수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⁴⁷⁾ 둘째, 실제로 통신 기능을 금융과 결합시킬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써 편리성과 유동성이 보장된다는 점, 셋째, 이를 위해서는 은행 계좌가 필요하며 이는 예금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휴대전화와 금융 부문과의 접목은 향후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전화돈의 긍정적인 기능이 공적 영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다.

V. 결론: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플랫폼 등장 가능성

본 연구는 전화돈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의 보급이 북한 금융부문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휴대전화 사업은 공식 영역에 속하면서도 암시장이 동시에 활성화되었으며 특히 ‘전화돈’은 북한 금융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측면에서 재발견하게 하였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판 모바일 금융서비스플랫폼의 등장 가능성이다. 그 이유는

47)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망을 리용하는 지능형손전화기가 급속히 보급되어 손전화기는 주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정보통신기재로 되고 있다.” 리유정(2018), p.43.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가 가진 상품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휴대전화는 활용도가 높아 누구나 소유를 욕망(欲望)하지만 동시에 고가여서 쉽게 소유할 수 없는 희소성(稀少性)이 높은 재화이다. 이로 인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언제 어디서든 급할 때 현금으로 호환 가능한 암시장이 싹트고 있어 휴대전화는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등장한다. 둘째, 이러한 휴대전화를 둘러싼 암시장 등장을 기반으로 이른바 ‘전화돈’이라 불리는 통화 시간이 화폐로 환산되어 거래되었으며 이는 북한판 모바일 금융의 등장 가능성을 높였다. 전화돈은 장마당 등에서 현금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간단한 이체를 통해 소액거래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휴대전화만 소지하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전화돈을 작게 나누어 이체 가능하다는 기술적 측면에 주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그러나 무엇보다 전화돈이 가치가 매겨져 거래가 된 이유는 휴대전화의 이중적 요금체계에 내재된 전화돈의 가치에 있었다. 즉, 기본 통화요금은 국정 가격체계가 적용되지만, 추가 사용요금은 시장 가격체계가 적용되어 외화로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전화돈’이라 불리는 통화시간에 가치가 매겨져 전화돈이 남는 가입자와 부족한 가입자 간 교환이 발생하였다. 즉, 휴대전화의 이중적 요금체계가 전화돈에 대한 희소성을 유발하고 금융부문에서 그 가능성을 재발견하게 했다. 넷째, 전화돈은 모바일 소액대출에도 활용되었다. 이는 전화돈을 충전하면 이월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다. 즉, 전화돈은 모바일 계좌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는 전화돈이 기존 사금융과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사금융시장의 등장을 의미한다. 기존 사금융이 일정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장사나 무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한 계층 간의 송금이나 대출 용도에 주로 활용되었다면, 전화돈은 휴대전화 보유자라면 누구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외진 산간 지역에도 적용 가능하며 기술적으로도 얼마든지 소액으로 나누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화돈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매우 효율적이며 절실한 금융 수단임을 뒷받침한다. 전화돈의 주 고객은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어 기존 사금융에서 배제된 저소득층도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군대에 간 자제에게 금전을 보내는 용도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전환돈의 확산은 또 다른 차원의 사금융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이 국가재정의 재원 마련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면, 전화돈은 통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더욱이 전화돈은 국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론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를 일정 부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한때 군대에 보내는 전화돈에 한해 제한적인 규제가 행해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화돈 남용에 국한된 통제였다. 물론 여전히 돈주의 무역 및 상거래 자금이 얼마나 공금융을 신뢰하여 흡수될지도 관건이다. 그러나 국가는 오히려 전화돈의 긍정적 기능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정책에 적용 및 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5년 이후 전성카드를 국가가 출시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성카드는 대화 기반이며 이를 통신 기능과 접목시킨다면 전화돈의 기능을 공금융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앞서 논의한 대로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법을 2021년에 새롭게 내왔다. 휴대전화를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이라는 국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주요 금융 수단으로써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이다. 이는 향후 북한에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플랫폼 등장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김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강신원. “모바일 금융의 국내외 동향: 케냐의 M-PESA를 중심으로.” 『TTA』. Vol. 161, 2015.
- 곽인옥. “북한 서비스산업실태: 무선통신.”; 이석기 외. 『북한의 서비스 산업』. 서울: 산업연구원, 2017.
- 겸철성. “손전화지불봉사의 조직과 경영관리.” 『경제연구』. 주체 109 (2020)년 2호, 2020.
- 김명숙.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22권 제1호, 2018.
-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2013.
- 김찬호. “아프리카 바꾸는 착한 휴대전화.” 『주간동아』. 640호, 2008.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5250/1\(2022/04/15\)](https://weekly.donga.com/List/3/all/11/85250/1(2022/04/15)).
- 류현정. 『북한의 이중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리유정. “이동통신망을 리용한 주민금융봉사를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주체 107(2018)년 제2호, 2018.
- 북한개혁연구원편. “북한 휴대전화 사용 실태 및 대북 진출방안.” 2013. [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korea/namsungwook/6.pdf\(2022./04/15\)](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korea/namsungwook/6.pdf(2022./04/15)).

- 장종문·박현주. “아프리카 모바일 머니의 보급 현황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Vol. 15 No. 34, 2015.
- 정은미 외.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 현정훈. “전자상업의 발전추세.” 『경제연구』. 주체 10(2016)년 제4호,
2016.
- 황규득 외. 『아프리카 모바일 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서울: KIEP, 2015.

〈해외 문헌〉

The Government of th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https://
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
1_VNR_Report_DPRK.pdf](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기타〉

Leora Klapper/김채령 번역 “경제개발의 주요 수단이 된 휴대폰: 여성들도
사용할까요?.” <http://brook.gs/2D6YhU4>(2022/04/15).